

美AG 커버넌트 교회 초코 목사 은혜와진리교회서 설교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봉사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명...”



미국 시카고 뉴라이프 커버넌트 교회를 담임하는 윌프레드 드 헤수스 초코 목사가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초청으로 방문, 8일 금요일예배와 10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뉴라이프 커버넌트 교회는 미국 하나님의성회에 소속한 대형교회이며, 초코 목사는 2013년 타인지 커버스토리에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인”의 한 분으로 소개된 바 있는 교회지도자이다.

초코 목사는 8일 밤 금요일예배에서 ‘희복의 값: 진정한 장자’ (눅 19: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데 이

어, 10일 주일에는 ‘완주하라: 떠나려감의 징조들’ (히 2:1)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일 예배에서는 사모인 엘리자벳 초코 여사가 “More Than Enough”이란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찬양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물하였다.

초코 목사 내외부와 통역을 한 최완기 목사는 카이노스성전에서 매 주일 오후 공연 중인 GNTC뮤지컬을 성도들과 함께 관람한 후 은혜로운 메시지와 공연에 대해 더할 수 없는 찬사를 보내며 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김민규 목사
고시위원장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민규 목사)는 지난 9월 7일(목)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모임을 갖고 면밀한 자격검토와 검증 실시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시위원 권우석 목사의 대표기도, 고시위원장 김민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6: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요즘 기독교인들이 프로젝트라는 미명하에 그릇된 복음에 온갖 인간의 기술만을 적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역자이다 될 것”을 강조하고 위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목사고시 응시생들에 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여나 부적격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목사고시 일정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서류를 일

부 보완토록 했다.

한편 2017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9월 21일(목) 오전 10시 총회본부 예배실에서 열린다.

포토뉴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사모회(회장 한정은 사모)는 지난 9월 5일(화) 낮 12시 총회 회의실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2017 전국 사모단합대회 일정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주 안에서 하나되자 (시 133:1)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모단합대회는 오는 10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열리며 1백여 사모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교단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외감과 고독감에 대한 해결책”



조용목 목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 아니라...” (사 41:10)

천재지변, 전쟁, 굶주림, 질병, 각종 사고는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외에도 인간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소외감과 고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할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인간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는 누구나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면, 자기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소외감과 고독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기주의를 정리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극도의 이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면서도 지나치게 인색하면 자신을 고독의 성안에 가두는 것이 되고 만다.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이기적 생각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망언자사로 여기거나 무심히 취급한 반면에 불편하고 없는 것만 헤아려 원망 불평거리로 삼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고독한 백성이 되어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요구가 많습니다. 자신은 베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기 타당화의 구실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가치 있는 것은 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언행과 예의 바른 언행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이 머물 수 없습니다. 진심

로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게 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보람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동분서주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전심 전력하였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고독감으로 힘들어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에서 이기주의자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보게 됩니다.

둘째는, 완전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다른 사람을 살펴볼 것 없이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기쁨과 너그러움 미움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성격이 각박하고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아낄 수 없는 관계나 상황이 아니라면 각박한 사람은 기피대상이 됩니다. 이해심이 부족하고 결핍하면 화를 내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고독의 성을 쌓게 됩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사람은 전소괴리꾼이 됩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싫어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고독하게 되는 사람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습관을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언히 미움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생각이나 소원을 성경에서 깨닫게 하여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다면 결코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갖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바른 성경 보급 확고한 의지 대내외에 천명

사단법인 한국성경공회 제18회 정기총회

대표회장 정규남 목사 비롯 임원진 유임, 보강

사단법인 한국성경공회 제18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일(금)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전진빌라 한정식 식당에서 열려 바른 성경의 보급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위해 많은 교단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총무 한기승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청광교회 담임 김경환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여장 합동 총회장 김신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총 154 말씀을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르게 번역된 바른 성경의 출간을 통해 신앙의 기준이 되는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을 것”을 강조하고 “바른 말씀 속에 미래에 소망을 갖고 성경이 인도하는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

신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라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국가와 민족복을 위하여’, ‘한국성경공회와 바른 성경 보급을 위하여’ 김용진 목사외 이계서 목사가 각각 주재해 기도했다.

대표회장 정규남 목사외 이사장 신영근 목사의 인사말, 고분 변남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총회가 대표회장 정규남 목사주재하에 개최되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신규와 성경번역위원회와 국어학자들 40여 명이 무려 9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바른 성경’이 2018년에 제1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성경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번역하여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하고 귀한 사역에 마음과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신 임원 선출에서는 운영규칙 제3장 12조에 의거 7명의 인사위원회에 의해 대표회장 정규남 목사부터 임원진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하고 일부임원만 보강하여 임명했다.



정규남 목사
대표회장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중앙총회, 임마누엘 정신으로 사명 감당

예장중앙총회 제48회 정기총회 개최...이건호 목사 총회장에 선임



임마누엘 정신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총회장 직무 대행 이진호 목사)는 제48회 정기총회를 ‘남양주 시대를 이루는 성총회’라는 주제로 지난 8월 31일(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7길34 (엘계1동)에 위치한 서울 중앙임마누엘센터 대강당에서 86개 노회에서 엄선된 총대 4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총회장에 이진호 목사(월계제일교회)를 선임하고 각부 임원은 신임 총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임하기로 했다.

이번 제48회 정기총회 예배는 이강덕 목사(서기)의 사회로 ▲정기총회 및 남양주 시대를 이루는 임마누엘 성총회를 위하여, 최영순 목사(경기북지역부총회장) ▲중앙총회 신학과 인준신학 발전을 위하여, 이복순 목사(재정부총회장) ▲본 교단 재역 중앙신학 대학원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유금순 목사



(학교법인 이사장) ▲한기총, 세한기총 발전을 위하여, 이병일 목사(총무) ▲CTS기독교 TV 발전을 위하여, 김애자 목사(CTS기독교 TV 교단방송이사) ▲기독교중앙신문 발전을 위하여, 한규섭 목사(편집국장) ▲국가와 한민족의 구원과 통일을 위하여, 고금용 목사(대외부총회장)의 기도 순으로 진행했다.

이진호牧사는 례 8:28 말씀을 본문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는 자가 되라 하셨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

고 말씀하셨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전했다.

이어서 김영란 목사(상찬집례위원장)의 집례(성찬위원 이복순, 유금순, 송순자, 박명옥, 신혜숙, 최영순, 임성자, 최영희, 오향초 목사)로 성찬예식 후에 송영우 장로(CTS네트웍 대표)가 축사를 했다. 정립 제47주년을 맞아 근속 30년 이상, 근속 25년 이상 목사에게 이진호 총회장 직무대행이 교단 공로패를, 임기를 마친 임원들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개혁총연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총회’ 개최

총회장 선출 및 임원 선출, 신천지대책위 특별부서 출범예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연(총회장 최원남 목사)은 제102회 총회 주제를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총회’라고 정하고 오는 9월 18일(월) 전주예수사랑교회(담임 최요셉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전주예수사랑교회에서 102회 총회를 개최하는 개혁총연은 한국장로교에서 유일하게 대회제로 운영하는 교단으로서 출범 당시 한국교회의 염려 가운데 출범했다.

기존의 총회들이 장로교 헌법을 중심으로 ‘총회=노회제’ 운영인 데 반해 개혁총연은

장로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회=대회=노회’ 운영을 선택했기에 한국장로교어는 교단도 시도해보지 않는 운영방식의 출범이 주는 기대와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대회제 선택 후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 개혁총연의 대회제 운영사례로 교관주의 불식과 매년 9월 총회만 되면 관습처럼 행해지던 총회장 선출과 관련 금품살포 등이 사라지게 하는 등 한국교회 안에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출범 당시 크고 작은 교단으로 산재해있던 중·소 교단을 한곳으로 묶어

시작한 교단으로 출범에 참여했던 교단들은 기존 총회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되 각 총회 명칭을 대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개혁총연이라는 총회 한 지붕 아래에서 연합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개혁총연에는 5개 대회(남부대회, 서남부대회, 동북아대회, 중부대회, 한남대회)가 활동하면서 각 대회가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 당해년도 총회장과 임원 선출을 해 당해년도 총회 운영 재정 등을 책임지고 총회를 이끌어 간다.

웨이크, 목사안수 청원자 심화필수교육 진행

박조준·림택권·정일웅·정인찬 목사 등 강사로 나서

국제독립교회연합회(설립자 박조준 목사, 이하 WAIC)가 제8회 목사안수 청원자 심화필수교육을 지난 9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진행했다.

4일 세계지도력개발원에서 진행된 심화필수교육에는 21명의 청원자들이 참석해 박조준 목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민

걸 목사(교회다움)가 강의에 나섰다.

박조준 목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선포이다”라며 “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 뜨거워진 가슴으로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진행된 교육에서는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정인찬 총장(웨스트민스터신학

대학원대학교), 정일웅 목사(WAIC 신학위원장), 박조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WAIC 신학위원장 정일웅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영혼구원이라는 패러다임을 강조한 나머지 미래의 천국약속만 중요시하고 영혼만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사상에 빠지게 됐다”라며 “그러나 영혼과 육체를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에 의존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다”라고 설명했다.

민걸 목사는 현재 목회의 문제들과 현대 많은 개척교회들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의 정답이 아닌 과거의 경험을 답습하는 목회방식에서 찾을 것을 제안하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교회와 성도들 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장기기증의 날 기념 리본 페스티벌

신동엽, 최지우 등 24명 스타들 바자회 물품기부

서울시가 주최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7년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는 리본 페스티벌-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초록리본 행사가 지난 9월 2일(토) 서울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했다.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하는 의미로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지만, 올해 장기기증의 날 행사는 일주일 앞선 9월 2일에 진행했다. 이는 장기기증의 날에 앞서 장기기증인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식인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이다.

이번 행사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24명, 생전 시 장기기증인 및 이식인 17명,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오전 11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에서는 박진탁 이사장의 개회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의 나백주 국장의 기념사가 이어졌고, 기념식 후에는 1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장기기증의 날을 의미하는 초록 리본 모형을 이북 1.5km의 거리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특별히 상체

에 장기기증 관련 이미지를 새겨넣은 스타 트레이너 이노드 흥 및 9명의 트레이너들이 퍼레이드 선두에서 행진을 이끌어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2017년 장기기증의 날 행사 소식을 전해들은 유명 스타 26명이 자신들의 애장품을 기부하며 장기기증 환우를 돕는 일에 앞장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연예인 신동엽, 최지우, 이시연, 이일화, 김연경, 윤도현, 소유진, 아이비, 문전성, 배한성, 다이나미 듀오, 김성경, 채수빈, 강예빈, 공민지, 김정화,

예바, 인로, 전소민, 황보라, 서은수, 키썸, 최일화, 헬스트레이너 이노드흥, 이상대 씨 등 26명이 자신의 애장품을 선물 기부하며 장기기증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배우신수 김연경 씨는 광복절에 진행된 배구 경기에서 자신이 신었던 신발을 기부하며 이번 장기기증의 날 행사를 알리고자 SNS를 통해 홍보활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스타들뿐 아니라 각 지역의 기업 및 일반 시민들의 애장품 기부가 합세하여 이어져 500여 점을 바자회 부스에서 판매했다.



교개혁, 제22차 수련회 12차 정기총회

신임 김태일 대표회장 선출, 수련회도 가제

교회경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이사장 김경원 목사· 이하 교개혁)는 제22차 수련회 및 12차 정기총회를 지난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열고 신임대표회장 김태일 목사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개선히고 개혁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개회예배에서 이사장 김경원 목사(서현교회)는 마 28:5-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마지막으로 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이진영 목사(인천제2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종교개혁은 교회의 타락으로 시작됐고, 교회의 회복으로 완성되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12차 정기총회에선 △명예회장 이진영 목사(인천제2교회) △대표회장 김태일 목사(인천제2교회) △상임회장 김찬곤 목사(안양석수교회) △상임총무 현상민 목사(성산교회) △서기 박성규 목사 △회계 이원희 목사 △감사 남병현 목사, 김기철 목사 등 새로운 임원진 구성했다.

수련회에서는 오정호 목사(교개혁 공동대표, 세로남교회)와 김성수 목사(교개혁 운영이사, 영광제일교회), 백동주 목사(교개혁



공동대표, 목포사랑의교회), 이정준 목사(교개혁 운영이사, 영산포교회), 황정식 목사(교개혁 고문, 성문교회) 등이 강사로 나서 각각 △오늘의 개혁자(양상 22:24~28)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것이 아님(살후 3:1-2)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까?(행 13:22) △다시 회복하자(행 4:18-21)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희망은 있다(삼상 4:19-22, 7:3-14) 등의 제목으로 강의했다.

정운락 목사(교개혁 목회자경신(새로움)위원)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 시간에는 △목회자 자신의 경신 △삼가는 교회 △한국교회와 신학생들 △다음세대를 기도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했고, 이원희 목사(교개혁 교회

회장(세움)위원, 신일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마지막 기도회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나 자신이 먼저 개혁되도록 △목회자 가정의 회복 △남북통일과 동상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회의 경신과 교개혁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밖에도 담임목회자 특강에서 최종전 목사(분당중앙교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 및 재정운영 관리의 실제’를 주제로, 부교역자 특강에서 이규현 목사(교개혁 차세대(기움)위원)가 ‘CITY TO CITY에서 배우는 교회’를 주제로, 여성지역자 특강에서 박유미 교수(교개혁 여성(돌봄)위원, 안양대학교)가 ‘구약의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의 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경 선언”

TBS1080 Movement 창립예배 및 창립식



TBS1080운동(Movement) 창립예배 및 창립식이 지난 8월 28일(토) 오전 8시 종로 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열렸다.

통독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 평신도가 연합하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성경선언을 통해 성경이야기 10%수준을 80%까지 끌어 올리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1부 창립예배에서는 장한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사철 장로(한평교회)의 기도, 정영욱 권사(델린트)의 성경봉독, 김해배 목사(서신성

결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담후 3:16:17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체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자”고 전했다.

이어 하이기쁨중창단의 특송과 바나나밴드 김세미의 은혜로운 연주가 있었다. 2부 창립식은 박창규 장로(윤중포럼 회장)와 서우경 교수(연세대학교)의 TBS성경선언과 신임임원으로 공동대표에 장한일 목사(생남부교회)와 오수철 장로(CIA총동문

회장)를 선임하고 대외협력본부장에 고창배 집사(오제이엔터스컴 대표), 홍보대사에 조혜련 집사(생송교)를 위촉했다.

이어 통박사의 특별 강의로 ‘종교개혁 500주년과 성경’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구제서 소장(육군훈련소)은 축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는 항상 말씀을 토대로 기도 훈련하여 늘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한용길 장로(CBS 사장)는 격려사에서 “오직 성경만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종교개혁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성경이야기 10%수준을 80%까지 끌어 올리자는 취지의 TBS1080운동을 확산을 위해 우리 모두 참여하자”고 전했다.

기도회는 계속해 최경우 목사(서울살랑교회)의 인도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거룩성 회복을 위해’, ‘TBS1080 운동을 위해’ 뜨거운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가을학기 이슬람에 대한 선교학교 개강

2005년 시작된 한국이슬람 중앙회의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전략에 의해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진호 교수는 “한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지방대학교는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실제로 중동지역 국비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인의 무슬림 개종 요인에는 무슬림과의 결혼과 이람이 공부, 미디어를 통한 공작, 식품인증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식품인증제도의 경우 건강식을 선호하는 한국인에게 ‘할랄’으로 접근하며, 국



내 유명 업체들이 앞 다퉈 할랄식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이슬람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지만 한국교회의 대응은 더디

기만 하다. 이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이슬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에 2017년 이슬람선교학교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서울 대림동 센터에서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14일(목)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 강사진은 유해석 선교사, 이동주 교수, 장훈태 교수, 유종필 교수, 박상봉 교수, 김지현 목사, 김요한 선교사 등이 나선다. 모집대상은 이슬람권 선교관심자와목회자 및 평신도등이 등록할 수 있으며 수업료 35%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1599-5591(FIM국제선교회) 사무실 / www.fim.or.kr)

(주)뉴이즈컴퍼니, 구세군 희망 나누미에 화장품 기부

‘애플린 스팟윅크림’으로 유명한 (주)뉴이즈컴퍼니(대표 이우성)가 구세군 희망나누미에 3억 5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하며 후원활동에 대한 전달식과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많은 기증 물품을 받은 구세군 희망나누미 측은(주)뉴이즈컴퍼니 이우성 대표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준 점에 매우 감사하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뉴이즈컴퍼니의 이우성 대표는 “200만 원으로 시작해 한 걸음씩 나아가 지금의 뉴이즈컴퍼니를 만들 수 있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는 누군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으면 했고 그래서 늘 한겨울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주)뉴이즈컴퍼니와 애플린은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사회 환원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세군 희망나누미는 기업과 개인이 기증한 물품을 재생산해 판매하는 재활용품 순



환의 기계이다. 판매한 수익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전하고자 2007년 시대분점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

부산신학교

예하성부산신학교(학장 고영권 목사)는 지난 9월 7일(목) 오후 7시 예하성부산신학교에서 2학기 개강예배를 갖고 2학기 개강과 학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교무과장 정환부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장 조병희 목사의 대표기도, 정환부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부산신학교 학장)의 사 3:7-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김정숙 학우의 봉헌기도, 증경회장 한명정 목사(부산신학교 이사장)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순서에서는 교직원 및 교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9월 11일(월)부터 강의가 학

사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을 알렸다.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최남성 목사)는 지난 8월 22일(화) 오전 11시 광양은혜와진리교회(증경회장 최형택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총무 김명자 목사(순복음신교중앙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배용환 목사(순복음진원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광양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 목사는 눅 5:36-39 말씀을 본문으로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예수님을 의지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라며 "우리는 심령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 말씀을 고백해야 한다. 고개를 불이지 말고 통째로 입어야 한다. 새 옷을 입으면 모든 성경이 열린다. 말씀을 날마다 새



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기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김갑진 목사(새아수은혜와진리교회)의 축복기도 및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남성 목사의 진행 가운데 서기 유용근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김명자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회계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방회장 최남성 목사의 마무리 기도으로 월례회를 마쳤다. 월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광양은혜와진리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모든 일정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치고 귀가했다.

순복음우리교회 이전감사예배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9월 2일(토) 오전 11시 순복음우리교회(이화숙 목사 시무)에서 이전감사예배로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서기 이광호 목사(한리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박종석 목사(벤엘전원교회)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11:19-26 말씀을 본문으로 '바나비와 같은 사람이 되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나비와 같이 성령충만하여 위로하며 함께 세워가는 삶을 살자"고 선포하였다.

이어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좋은나무교회)의 축도로 이전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 순복음우리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야유회 갖고 목회정보 교류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9월 5일(화) 월례회 및 야유회를 갖고 회부처리 및 회원 간의 교제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서기 이광호 목사(한리순복음교회)의 대표 기도,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좋은나무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요 21:15-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주님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받는 목회자상이어야 힘을 얻지 말고 아름다운 목회를 이어가



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로 각종 회부를 처리하였으며, 야유회로 운주계

곡에서 목회의 휴식 그리고 새로운 회원 소개와 친교의 시간으로 교역자간에 즉구시합 그리고 목회의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8월 월례회 및 운주계곡 야유회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8월 22일(화) 대전시 중구 석교동에 위치한 엘베헤교회(담임 차재현 목사)에서 지방회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석인권 목사(하늘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미순(한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눅 23:33,39-43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에 임하는 지방회원 목회자들도 각자 맡은바 충성스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함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역자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증경회장 정운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지방회장 엄기설 목사의

야유회 행사안내로 1부 예배 순서를 마쳤다. 2부 야외예배는 전복완주군 운주계곡으로 이동하여 부회장 김병목 목사의 기도으로 시작하여 엘베헤호동교회에서 준비한 삼겹살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옆에 있는 흐르는 계곡물에 몸을 담고 보트를 타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깨끗이 씻어 버렸다.

이어 휴식시간에 은혜와찬양교회에서 준비한 과일과 차를 먹으면서 회원들 간의 친교와 화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 지방회장 엄기설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의 안전과 교단의 부흥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월례예배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복귀하였다.



9월 월례회 갖고 추계수양회 준비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9월 4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주천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부를 처리했다.

이날 예배는 안병섭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사회로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기도, 안병섭 목사의 성경봉독, 회계 박영욱 목사(순복음침종은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사 43:1-7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내 것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 염려 걱정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통성기도 후 조경화 목사(순복음주



님의교회)의 헌금기도,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부처리 시간에는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가 오는 9월 18일부터 있을 추계수양회

에 대해 전달하고 은혜가운데 월례회를 마친 후, 순복음주천미교회에서 대접한 풍성한 식사를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

광주신학교

예하성 광주신학교(학장 김영인 목사)는 지난 9월 4일(월) 낮 12시 목양제일교회(담임 목사)에서 2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참된 교육장이 되기를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교무과장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총무이사 장영기 목사(순복음영광교회)의 기도, 최정식 목사의 성경봉독, 주덕영 목사(나주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주 목사는 고전 4: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장 조원재 목사의 격려사와 총



회장 김영인 목사(광주신학교 학장)의 교수 소개, 본교 교수 김명자 목사(선교중앙교회)의 헌금기도, 주덕영 목사의 축도로 개강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평창·삼척 등 여행, 하나님의 창조 은혜에 감사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이창모 목사)는 지난 9월 5일(화) 회원들 간의 돈독한 우의 도모와



함께 심신을 하나님께 조성하신 자연을 통한 은혜 안에서 원과 여유를 얻고자 강원도로 추계 야유회를 떠났다. 오전 7시에 부천 송내역에서 모여서 증경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가 임대비 전액을 후원한 관광 버스를 타고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의 기도 후에 출발하였다.

알펜시아 스키 리조트, 전망대 등을 관광하고 묵호항에서 곰치국으로 점심식사를 하

며 동해의 풍경을 음미한 후 환선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를 너무도 다양하고 풍성하게 간직하고 있음에 감탄하며 야유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회원들 모두 강원도에서 얻은 기분 좋은 피곤함을 안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이번 야유회를 통해 회원들은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각자의 삶과 목회로 인한 피로를 모두 날려버리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었다.

■ 생명의 말씀 ■



오일선 목사

· 충남지방법원 경정회장
· 순복음포도원교회 담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분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성도들이 죄악세상에서 구원 받은 사건의 예표입니다. 둘째,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령강림절 즉 오순절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셋째,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중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자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게 되었으며, 그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복

(신 16:9-17)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찌니라”(신 16:12)
그러면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 삶의 만족과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살면서 매사에 원망과 다른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는 생활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만족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국의 신앙가요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법사에 감사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법사에 감사하며 살 때 불평과 불만이 평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사에 감사하며 살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답게 됩니다. 법사에 감사하며 살 때 좋은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고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됩니다. 건강이 좋아

집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감옥에 쇠사슬로 묶인 채 수감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법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들이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얹어매고 있던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감옥 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삶의 만족과 기쁨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재물이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 4:6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귀의 시험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10년째의 자녀가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도 많았던 재산이 어디론지 날아가 버리고, 건강하던 육체마저도 병이 들어서 읍인 지 아닌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읍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법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 속에 있던 환경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욥 42:12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안나귀 일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라고 했습니다. 욥이 법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행복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십일조만큼은 철저히 드렸다고 합니다. 한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물에 동동 뜨는 엉터리 비누가 생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직원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장은 그 비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오르는데 욕망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누 이름을 ‘아이보리비누’라고 지어 시장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누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재물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영 육간에 부요의 복을 배풀어주십니다.

아름이란 사람이 하란 땅에 내려가서 외삼촌의 양을 기르는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품삯을 열반씩이나 준다고 말하며 안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법사에 감사함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에 스펀전 목사는 말하기를 쫓돌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쫓돌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만족과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재물을 복으로 바꾸주십니다. 영 육간에 부요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 하느니라”(골 3:5-6)고 경고 하신다.

총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행하여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총회인 만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룩을 유지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한 수고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요 교단의 이번 가을 총회는 모든 총회가 그야말로 성총회(聖總會)가 되며,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과 함께, 다시 척박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파종(播種)하는 겸손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동 정

김인찬 목사 자녀 결혼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영신교회 담임)의 딸 미라 양이 오는 9월 16일(토) 오후 2시 청주 더빈 컨벤션 1층 체

플홀에서 혼례식을 거행한다. 위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길 5(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299)이며 김인찬 목사 연락처는 010-3033-0073이다.

일본기독교 영적각성 대성회



광복 72주년을 맞아 일본기독교가 참회와 회개의 심정으로 영적각성 대성회가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를 주강사로 오프 비야고 국제중앙교회에서 최근 열었다. 재일한국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일본 기독교 총회장을 비롯하여 일본 교계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신앙 각성운동을 목적으로 성회지리를 마련했다.

나사렛대, 후기 학위수여식



나사렛대(총장 임승안) 평생교육원(원장 정진태)은 지난 8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제2강학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7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학위를 받은 24명의 졸업자들은 배움의 기회와 시기를 놓쳐 개인사업, 공무원, 학원운영, 프로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주경야독’의 생활을 병행하며 꿈을 이뤘다.

서울신대,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신학대 학교(총장 노세영 박사의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1일(월) 서울신대 성결인의집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135명이 학위를 받고 사역지와 일터로 첫 발을 내디뎠다. 노 총장은 “서울신대에서 배웠던 신앙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졸업생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7. 8. 31(목)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7. 9. 07(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7. 9. 21(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7. 8. 31(목)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8. 2. 5(월)~6(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양인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엄기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최정식 목사(순복음복원교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성공비결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영적관계가 항상 좋아야합니다. 그래야 법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 10:22).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신앙입니다.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확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합니다.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은 세상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 올바른게 가르쳐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길만이 한국 교회가 살고, 목회자들이 살고,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베버가 자본주의 나라들을 직접보고 경험하면서 자본주의를 지탱해주고 있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버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 교육열이 더 높고 경제적으로도 더 잘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나 경영자들과 뛰어난 기술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과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며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성공비결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적용하기 때문에 잘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안에는 올바른 경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인지, 돈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일으킨 정신적인 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올바른 경영윤리입니다. 즉, 정직과 부지런함과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과 저축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이 나쁘냐, 좋으냐, 영적이냐 아니냐는 돈을 사용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베버는 기독교인들은 근면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재산이 증식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 자신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배우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남을 위해 돈 쓰는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직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관은 왜곡되어 있을

니다. 유교의 사농공상(士農工商)은 ‘사’ 즉 선비가 되어야 성공한 인생임을 의미했습니다. 농동을 하지 않은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죽도록 공부해서 힘든 노동 대신 공무원 같은 펜으로 사인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부소유’를 가르치는 불교와 혼합하면 ‘비노동’ 정신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경건이거나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러한 사상 때문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자기 일을 찾아낸 삶은 행복하다. 그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톨스토이도 일에 대해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경제윤리와 올바른 직업관, 그리고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쳐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말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에는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칠 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으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대상 29:26-28)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1차 설교작성 위한 목회자료 수집·활용·관리 세미나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목회와 설교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전득 퍼오기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무리 많은 자료일지라도 저장과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실용적인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30년 동안 목회와 설교자료를 모아 데이터

저리를 해 놓고 목회현장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현장 목회자의 자료 활용 노하우는 실제적인 목회자료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마이크로 오피스 원노트 강의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그동안 참석했던 참가자들도 다시 참석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회와 설교준비와 기타 학위논문 준비에 교육 자료를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원한다.

참가문의 : 이메일(leesm6026@hanmail.net) 휴대

폰(010-9735-6026)으로 신청.

일시 : 2017년 10월 12일 (목) 오후2시-5시

강사 : 이석민 목사 (전화:010-9735-6026 / 02-804-6026)

주최 : 대민성결교회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13층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성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교통 : 1호선 종로5가 2번 출구

회비 : 10,000원 (교재비)

준비물 : 노트북, 없어도 가능하지만 실습 위주로 진행되므로 가능하면 노트북과 USB를 지참할 것.

자세한 사항은 http://cafe.daum.net/daeminchurch 참조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학자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대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예술선교의 신학적 배경 ⑤

5. 기독교와 예술

종교와 예술은 그 시원에서부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후대에 와서도 예술은 종교적인 삶이 표현으로서 전승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하여 예술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우선 성서 자체가 타종교의 경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물론 성서가 지닌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적 측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구약의 경우를 보자. 15권의 예언서들과 성문서의 시편을 비롯하여 지혜문학에 속하는 잠언과 욥기, 그 밖의 예언서, 아가 등 거의 전부가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욥기도 구약의 시문학뿐만 아니라, A테나스 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쓴 시중에서 가장한 위대한 시'로 찬탄을 받고 있다. 또 신약의 복음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수의 풍부한 비유적 표현과 산상수훈의 경구(epigram)적인 표현, 그리고 바울의 사랑의 찬가(고전 13장) 등은 문학으로서도 뛰어나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그 놀라운 상징력에 의한 상징과 환상으로 구성된 위대한 구약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T. S. 엘리트가 그의 '종교와 문화'에서 '성서를 문학으로서만 논의하는 것은 성서가 주는 문학적 감화력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듯이 성서의 가치를 문학으로서만 평가해서는 안 되었지만 성서가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감화력은 문학적 의장에도 함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시편에서 비롯되어 초대 원시교회를 거쳐 오늘날의 찬송가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교회 음악은 기독교 예술의 어느 분야보다도 그 관계가 가장 깊고 밀접하다. 시편은 하브리 원어인 테힐림(Tehillim)이란 말 그대로 '찬양' 혹은 '찬양의 노래'로서 유대교의 예배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편집된 찬송가집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낭독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에 맞

추어 노래로 불리워졌던 것으로, 처음부터 찬송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비롯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예배의식이 정비되어 성가대가 생기고 교회음악도 정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시대에 와서는 시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면서 찬송가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어 개혁 교회의 예배를 활성화시키는 중핵으로 작용했다. 특히 칼빈의 제자인 베지에 의해서 완성된 '주네브 시편가'(Psaumes de David, Geneve)는 개신교 음악사상 불후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부터 찬송가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영국, 미국으로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예배의식의 하나로 등장한 종교극으로는 예수의 생애를 다룬 수난극(Mysteries)과 마리아나 성인을 다룬 기적극(miracle play) 등이 있는 이는 중세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예수 수난극은 독일의 오베마르트가우에서 5월부터 9월에 걸쳐 1,000여 명의 연가자가 등장하여 공연하는 예수 수난극은 60여 년의 전통을 지닌 빅 드라마로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독교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수록 우리는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에 예술이 담당할 몫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려면 종전의 선교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기독교 예술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문체부 김갑수 신임 종무실장 한교연 내방

동성훈을 합법화할 경우 엄청난 반대에 직면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신임 종무실장이 지난 9월 7일(목) 신임 인사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을 방문해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기독교계가 동성애 반대와 동성혼 합법 개정 움직임에 온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만약 헌법을 개정해 동성혼을 합법화할 경우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교인과 세와 관련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정부의 과세정책에 관해 한국교회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세금도 내고 세무조사도 당하고 불의한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

해 활동하는 것까지 눈뜨고 당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무조건 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안 내려 한다고 여론몰이를 할 게 아니라 정치와 종교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정치에 의해 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갑수 실장은 “기독교계의 의견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하여 정부와 종교계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 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6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9월 21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1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50,000원
- ②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목회대학원

2017년도 2학기 개강예배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해 헌신 다짐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목회대학원 2017년도 2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9월 4일(월) 오전 11시 목대원 강의실에서 드려져 사역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총회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총회 목회대학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목회대학원 교수 이용주 목사(교단 증경 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 받아 나선 사역자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 기도 하므로 영적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한다”고 전하고 “믿음을 굳게하여 사탄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목대원생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개강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부산지방회

산청에서 1박 2일 하기 수양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9월 4일(월)~5일(화) 하기 수양회를 갖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며,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양회 첫날, 경남 산청 한방 가족 호텔을 숙소로 정하고, 함양 삼림숲을 둘러본 후, 두레마을에 도착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다음 날에는 허준 동의보감촌 일대와 지리산 천년송과 그 일대를 둘러보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으며, 정령지를 지나 남원에서 공한루를 관광한 후 남원 추어탕으로 맛난 저녁을 먹고 부산으로 귀가했다.



경기북지방회

월례회 모임 및 축령산 산책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9월 12일(화) 오전 11시 기쁨에서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시 87:1-7 말씀을 본론으로 한 설교, 서기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회장 탁정신 목사의 진행기운에 서기 육준수 목사의 회원점명,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와 회계보고, 이경진 목사의 재무보고가 이루어졌고 3부 순서로 안전토의 시간을 가진 후 강인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회원들은 축령산 둘레길을 걸으며 친분을 다지고 조성에 전도사의 전도사 임명장 수여식도 가졌다.



하기수양회 '심을 통한 회복'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8월 21일(월)~22일(화) 경주 컨디션 리조트에서 '심을 통한 회복' (영상 19:5-8)을 주제로 하기 수양회를 개최했다.

첫째날에는 이성석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한소망교회 담임)가, 둘째날에는 신홍섭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순복음반석교회 담임)가 특강을 진행했다.

수양회를 무사히 마친 영남동지방회는 이번 하기 수양회에 후원과 찬조로 함께 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8월 28일(월)~29(화) 공기 맑은 충주의 계명산 휴양림에 있는 한 편에서 머무르며, 목회자들의 지친 심신을 활명하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회원들은 충주호에서 유람선을 타고 충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돌아보며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간의 가졌다. 또 수안보로 이동해 쥬 요리로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온천탕을 찾아 피로를 달랬다.

이후 휴양림 숙소에서 도착하여 예배와 월례회를 갖고 하계수련회를 통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휴식과 사랑의 교제를 가지며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목회지역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방은혜 목사(임마누엘교회)의 대표기도와 박형우 목사(은광교회)의 설교 순으로 드려졌다. 이튿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치유의 숲을 거닐고 아침식사를 마친 후 이종원 목사(이루리교회)의 대표기도와 증경회장 최한규 목사(하늘품교회)의 설교 순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후 집정리를 하고 중앙탑에 둘러 판금대를 관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의 평안함 가운데 목회현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며 회원 간에 연합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신이 내린 바다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체험담

안산거주 김○○ 성도의 어머니(84세)가 이 제품으로 양치질과 가글을 한지 보름만에 **풍치**를 비롯 잇몸질환이 개선되고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구취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 (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기간 동안(2017년 9월 1일~2017년 10월 31일)은 30%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아이티 학교 건립 위한 자선특별전

월드비전, ‘아이드림’ 자선경매 성료

월드비전 홍보대사 배우 이광기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과 함께 개최한 자선특별전 ‘1DREAM(아이 드림)’의 자선경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광기는 지구촌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올해로 6회째 월드비전과 자선특별전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 지역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보수·건립을 위해 기획됐다.

8월 31일(목)부터 9월 5일(화)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달라이트 스퀘어 갤러리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월드비전과 Kevin(이광기 홍보대사의 아들 故 이석규 군)의 영어이름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미술경영연구소(소장 김윤섭)가 주관을 맡았으며, 달라이트 스퀘어가 후원, 한양여대 미술학박사 이종철 교수가 지문을 맡았다.

이번 전시에는 초대작가 81명의 150여 점의 전시되었으며, 회화, 조각, 공예, 가구,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한국 현대미술 장르의 대표작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초대작가들은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작품을 20% 이상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소개했다.

한편, 8월 31일 오프닝 행사에는 이번 행사를 주최



한 배우 이광기를 비롯해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배우 조재현, 가수 김정민, 배우 공현주 등 동료연예인과 이번 자선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9월 2일(토)에는 홍보대사 이광기, 미술평론가 김윤섭, 초대작가 문형태 3인이 월드비전 후원자들을 초청해 이번 자선전시회 기획 의도와 미술이 어떻게 나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아트토크 시간을 가졌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 등 30여 명의

후원자 가족들이 함께했다.

이어서 출품작품 중 20여 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이광기 씨와 진본이 있는 가수 마야, 방승인 김원희, 최은경 아내문서, 개그맨 김한석 등이 참석했으며, 배우 이광기가 직접 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4천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또한 전시기간 중 판매수익금 6천여 만 원이 모였으며 이중 일부가 월드비전의 아이티 학교 건립 사업인 ‘세이프 스쿨(Safe School)’에 쓰여질 예정이다.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음악회 개최

오는 21일 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야외무대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목사 이재철)가 주최하고 마포구청이 후원하는 제20회 양화진음악회가 오는 9월 21일(목) 오후 8시에 합정동 소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양화진음악회는 200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세계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와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번갈아 가며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번 제20회 양화진음악회는 ‘실내악’으로 꾸민다. 유럽의 낭만 음악의 밤’으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뮌헨 국립음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교수로 세계무대에서 활동 중인 첼리스트 볼프강 엠마누엘 슈미트 영국 런던 길드홀 음악원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며 30여 명의 음반을 낸 로난 오호라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씨는 16세의 나이로 매뉴린 아카데미 오디션에 발탁돼 유학길에 오른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은 쾨넨 엘리트체스 뮌헨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1998년 영국 레스터의 드문포르트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뮌헨 국립 음대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로난 오호라씨는 영국 태생의 피아니스트로 맨체스터의 북부 왕립 음악원(Royal Northern College of Music)에서 바크스트(Ryszard Bakst) 교수를 사사했다.

런던 필하모닉, BBC 심포니, 영국 챔버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헝가리 필하모닉 등과 협연했다. EMI, 버진클래식 등의 레이

블에서 30여 장의 음반을 출시했다. 모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런던 길드홀 음악원(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피아노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독일 태생의 첼리스트 볼프강 엠마누엘 슈미트는 미국 줄리아드 음대와 독일 뮌헨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뮌헨 국립음대 재학 중 전 독일대학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했다. 그 이후 뉴질랜드 국제 아마 첼로 콩쿠르와 바이로이트와 마크노이키르헨 콩쿠르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미국, 아시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전임 교수, 베를린 국립음대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 CTS 한국교회에 두 권의 책

평신도, 루터의 길을 걷다 &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인생 학교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CTS기독교TV가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

바로 <평신도, 루터의 길을 걷다>와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인생 학교>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2017년, 낯설고 멀기만 한 종교개혁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각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내놓는 ‘종교개혁 안내서’이자 ‘건강한 신앙고백’이다.

<평신도, 루터의 길을 걷다>는 CTS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루터의 길을 걷다>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 탤런트 박시은 씨가 평신도의 시선으로 유럽 종교개혁자의 위대한 유산을 찾기 위해 떠났던 2주간의 순례 여정을 그린 책 <루터의 길을 걷다>는 예배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체코 프라하에서 시작해 독일을 거쳐 스위스 제네바까지, 책을 읽다보면 쉽게 갈 수 없었던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을 함께 순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특히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기독교한국루터회 감동진 목사의 깊고 풍성하면서도 쉽게 풀이한 종교개혁의 이야기들과 함께 현장의 사진이 어우러져 더욱더 독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루터의 길을 걷다>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선물의 의미로 CTS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다큐 <루터의 길을 걷다> DVD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CTS기독교TV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간 두 번째는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인생 학교>다. CTS의 인기 프로그램 <4인 4색>을 통해 방송된 명강의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인생 후반전의 삶을 신앙으로 결단하려는 중년 세대들을 위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백세 시대를 맞아 중년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인생 학교>는 ‘관계,’ ‘돈,’ ‘건강,’ ‘영성,’ 각각의 분야에 대해 일

고 배우면서 인생 후반전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

동두천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사는 성경적인 방법을 담은 중년세대의 자기계발서”,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중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정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소개돼 있기에 믿음이 없는 이들 에게도 좋은 선물”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4인 4색>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CTS의 간판 프로그램답게 책 속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풀어놓은 진심 어린 조언과 하나님의 지혜들은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CTS기독교TV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도서 <평신도, 루터의 길을 걷다>와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인생 학교>는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특별히 CTS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다큐 <루터의 길을 걷다> DVD를 포함해 두 권의 책을 함께 세트로도 구성해 신нат한 케이스에 담아 독자의 계절 가을을 맞이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평신도, 루터의 길을 걷다>는 정가 14,000원,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인생 학교>는 정가 13,000원이다.

(문의 : 02-6333-1029)

한국사회발전연구원 개원식

‘인권 강화와 사회통합위한 종교 역할’ 주제 세미나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최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그라운드에서 개원식을 갖고, 이어 ‘인권(人權) 강화와 사회통합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회연합 초대회장 김요셉 목사,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 조일래 목사, 합동총회장 김진규 목사, 기성총회장 신상범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전병일 목사,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박종천 목사, 한국교회연합 前사무총장 김춘규 장로, 한국기독교실업인 회장 두상달 장로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생명존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인프리를 구축하고 절목함으로써 소외층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꾸준히 찾고 노력하는 단체이다.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해, “~~다음”의 부족으로 본질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는 순결·거룩성과 지혜로움의 부족이고, 아울러 무시한일 주의에 따른 복지부동과 개인 및 계파 중심적 사고가 두드러지게 발생함으로써 동질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양상 속에, 나무만 바라보니 푸르른 숲은 전혀 보지 못하는 우물반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실지어, 한국사회에 직면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 해

결에 있어서도 성숙함보다는 대안 없는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함을 일관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편중되지 못함으로서 한국 사회발전의 또 다른 병폐인 양극화를 일궈내고 있다고 했다.

예로, 기독교는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후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한국사회발전의 부흥을 위해 온갖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결과 현재 한국사회의 가시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3·1독립선언의 선봉에 섰던 민족 지도자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는 물론, 정치·교육·의료·봉사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한국산업화와 민주화에 있어 선봉의 지리에 있었으며, 지금도 타 종교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많이 교회와 구제 및 봉사하고, 더 많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으로 기독교는 현재 국내 최대의 종교가 됐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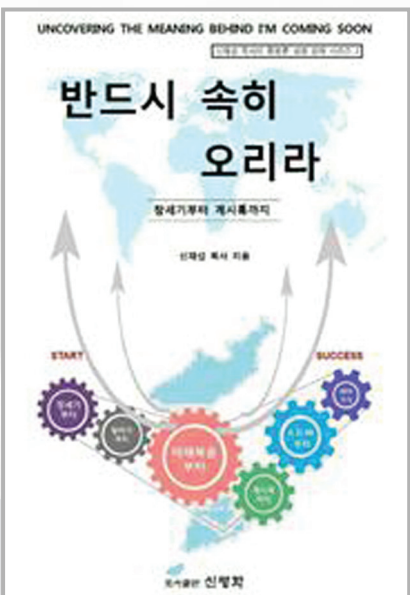
하지만, 기독교는 현재 한국사회의 내·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며, 신뢰도 또한 계속 하락됨은 물론이고, 선한 영향력 역시 한국사회에서 인식됨이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신재섭 목사의 종말론 성경 강해 시리즈 2권

교재의 특징

1.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속히 오는 종말론을 연구하므로 성경해석학이 분명해진다.
2.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한 권의 책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종말론이 다 밝혀진다.
3. ‘반드시 속히 오리라’ 2권의 책은 가상, 예측 미래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상이다
4. 성경의 하이라이트인 종말론이 열어지면 창세기 – 계시록까지 한 줄기로 열어진다.
5. 오늘날 종말론 때문에 전 세계에 거짓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 일 시 : 2017년 9월 11일(월)–12월 11일까지
강의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 동영상 : 검색 신재섭 목사
- 참가비 : 3개월 700,000원 (교재 포함)
- 문 의 : 010-4380-8751 (순복음약속교회)
- 주 소 :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86-11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 출범

활성화위원회를 통해 강원도 내 장기기증 활성화 계기마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택)는 지난 9월 5일(화),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제일감리교회에서 강원지부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이하 제주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교계가 앞장서 국내 장기기증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전국 14개 교단의 총회장 및 대표와 각 교단의 200여 교회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활성화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그 뜻을 이어 제주지부 장기기증 활성화위원회가 출범, 이번엔 세 번째로 강원지부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강원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는 최현영 목사(원주제일감리교회), 신관우 목사(영릉감리교회), 박인철 목사(분막제일감리교회), 편동길 목사(밀알감리교회), 공기현 목사(동부연회 총무)로 구성되었다. 5개 교회의

목사가 함께하게 된 강원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는 최현영 목사가 활성화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5일 오전 11시, 활성화위원회 출범식은 감사예배와 위임장 추대식으로 진행되었다. 감사예배는 본부 강원지부의 사무국장인 박정식 목사의 사회와 박인철 목사(분막제일교회)의 기도, 신관우 목사(영릉교회)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한편, 지난 1991년 설립된 본부는 26년의 해를 거듭하면서 94여 만 명의 장기기증등록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장기기증 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본부 등록자의 80%가 넘는 등록자가 기독교인인 만큼 많은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참여가 이어졌다. 이같이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관심은 지금까지 5,000여 교회가 장기기증에 배에 참여했을 정도로 뜨겁다.

기감(연합), 목회자세미나 개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단과 교회가 되자”

기독교대한감리회(연합)(감독 이승우 목사)는 지난 8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강원도 속초 추암하우스에서 교육국 주관으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교육국장 문병화 목사의 사회로 주 사랑교회 이태환 목사의 기도, 감독 이승우 목사의 사 27:2-6 말씀을 본분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이날 “우리 기감연합은 요한웨슬리는 항상 아팔게 하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가 그의 주제였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생각하며 쫓대(목표)를 세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감연합 교단과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2부 강연은 1-2강은 ‘성경 속 현장체험 이란 주제로 주 사랑교회 김승학 선교사가, 3강은 ‘목회자 헌금 및 재정관리’란 주제로 증경감독 이복래 목사가, 4강은 ‘한국교회의 개혁적 대안’을 주제로 수원남부교회 민병소 목사가, 5강은 ‘전도와 선교’란 주제로 군산생명교회 문성부 목사가 나서서 열띤 강의를 했다.

2박 3일간 25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는 조항보 증경감독의 축도로 마쳤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잃어버렸던 은혜와 열정을 회복

할렐루야! 개척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부흥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고전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 너무나 전도에 열광했기 때문에 혼자 동네를 돌기도 하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열매도 없고 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 반지리를 채우는 주인공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말이다. 그러던 중에 대구에 있는 박이택 목사님으로부터 가족세트전도법을 소개 받고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첫 시간 여러 가지 간증 영상을 보면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을 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능력 전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가족세트 전도만이 4차산업혁명 이 도래한 이 시대 확실한 전도 방법임을 깨닫고 나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전도를 하리라 결심하게 되었다.

사실 이 집회를 참석 할 당시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

지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복음의 열정과 충만함이 사라져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쳐 있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기도 하고 있었는데 강사 박영수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전도현장에서 실습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은혜와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도현장 실습 후 마무리 하면서 예배하던 중에 아픈 곳이 치료 받는 기적도 체험했다. 2년 전 왼쪽 가슴에 혹이 발견된 후 병원에서 정기 검진도 받고 정밀 검사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생각지도 못한 만년 속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12번의 집회 참석을 권유했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1번의 참석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는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전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들이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 하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강의와 현장코칭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울산희망교회 이민자 사모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하창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창조신앙과 진화론의 공존이 가능한가?’란 주제로

제6회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창조과학세미나 개최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교수)는 오는 9월 25일(월) 오후 12시 30분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남서울교회(담임 화종부 목사)에서 ‘제6회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창조과학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신앙과 진화론의 공존이 가능한가?’란 주제로 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21세기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만연된 진화론과 과학주의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시기에 전문가들을 통해 최신 과학자료로 창조의 신성과 능력을 전하며 선교와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세미나를 기획, 진행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강의주제와 강사로는 ‘창조신학과 반 창조 세계관’ 박태영 목사(대전 은누리교회), ‘창조신앙과 과학, 그리고 복음’ 한윤봉 교수(연세대학교 화학공학부), ‘생명정보는 정말로 발생할 수 있는가?’ 최윤식 교수(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지구 환경은 진



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동권 박사(쥬지오스캔 이사), ‘우주 속에 숨겨진 창조설계의 비밀’ 권진혁 교수(영남대학교 물리학과) ‘한교회와 선교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조용중 선교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등이다.

* 일시: 2017년 9월 25일(월), 12:30-18:00
* 장소: 남서울 교회(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http://ramseoul.org>)
* 등록: 1만원/1인(간식, 교재 제공)
* 참가 신청: 한국 창조과학회 홈페이지 (www.creation.or.kr)

* 입금계좌: 우리은행 132-125115-13-201(예금주: (사)한국창조과학회) 한편, 한국창조과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목회나 선교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 보급하기 위해 참가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문의처 : 한국창조과학회 (02-419-6465/ edu@creation.kr)

전도자 초청 중국순회 무료세미나

‘N+교회사역연구소’ 주최로 오는 22일까지

작은교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목회자료를 지원하는 ‘N+교회사역연구소’(소장:김인하)가 전도자들을 무료 초청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될 ‘무료초청 전도기도 중심 세미나’는 9월 12일(화) 김해동산교회(윤용근 목사 사무에서 시작으로 15일(금) 대구월성제일교회(인형식 목사 사무)에 이어 21일(목) 대전기양제일교회(이병후 목사 사무), 22일(금) 목포평안교회(김강순 목사 사무에서 잇따라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모든 교회가 전도를 통해 부흥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작은교회와 농어촌교회, 미지립교

회에 보다 적극적인 교회부흥의 원동력을 제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N+교회사역연구소 소장 김인하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교회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3인의 전도자와 기도자를 찾고 그들을 통해 각 교회마다 믿는 아가 더하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전문 강사진은 ‘안 될 수 없는 교회부흥의 원리! 전도!’의 박재열 목사(서울동선교회), ‘절대 믿을 절대 긍정으로 전도의 한계를 초월하는 포도원교회 전도 현장’의 김בח문 목사(부산포도원교회), ‘하루에 200명을 만나는 굿모닝 전도왕’의 안을수 목사(광주제일성결교회), ‘전교인이 전도에 참여

하는 FIVE전도대’의 박재신 목사(전주양정교회)가 전도현장의 소리를 전해준다. 복음전파에서 파워전도까지 입체적 목사(대전열방감리교회)의 파워전도법과 평신도 사역자로서 귀한 전도열매를 맺고 있는 한국도농선교회 대표 최원수 장로의 소금전도법도 소개된다. 김인하 목사는 ‘3달 안에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실제적인 노하우’를 제시한다.

2009년 창립된 N+교회사역연구소는 ‘교회 4대 중점사역인 전도 기도 양육 소그룹을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 사역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강해

신재섭 목사 // 예하성 서울남서지방회 중경회장

“속히 오리라”를 찾아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 1-13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시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 하신 것이라

계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1-3의 ‘속히’라는 단어를 풀기 위하여 한국과 세계가 AD96년 이후로 21C까지 “속히라는 단어”에 매달렸다. 세계에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와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 ‘속히’라는 단어는 계 1:1의 자리를 지키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 기념일을 무뎠기 나루 비유로 ‘속히’를 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1993년의 70이레를 계산하여 ‘속히’를 풀려고 수많은 방정식을 내놓아도 종말론적 세상은 요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히’라는 단어를 사람의 시간으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야하는가에 도달하여 결론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한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 서 있다.

‘속히’라는 단어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AD96년 이후부터 21C까지 1922년 동안 끌려왔으니 세상적 종말론은 끝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로 전 세계적인 종말론의 징조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성경 말씀으로 속히 이루어질 상황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속하, 전쟁, 지진, 기근, 속도, 배타적, 우주전쟁,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 3성전, 적그리스도, 사람의 식아집, 세계의 흐름, 특별계시 받는자, 환난의 사건과 DNA 계시록 도표들 만들어 흉수 같이 쏟아내고 있지만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계시록 연구가들이 AD96년 이후로 21C까지 1922년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시대로 예감, 예측, 학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속히’라는 단어만 부르짖다가 죽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짐승의 수 666을 찾아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에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수 666을 밝혔듯이 ‘속히’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다 밝혀진다.

왜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으로 20만 명 이상을 잡고 있나?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사도요한이 미래에

대한 환상의 계시록을 받아먹고 기록하였으니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만희에게 실상의 계시록을 받아먹게 하여 계 1:1-7까지 이만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계시록 1장에서 22장 21절까지 실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짜집기 성구로 자신을 계시받은 자, 보혜사 성령, 이긴 자, 약속의 목자를 들고 나와 실상의 계시록을 전하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가 실상의 계시록을 전하면 이만희 시대에 계 1:1-22:21까지 다 풀여지고 끝내야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을 다른 이단에서는 년, 월, 시로 정하여 나오지만 이만희는 자신의 시대로 종말론을 결정하고 나온 것이다. 이만희가 실상의 계시록을 들고 나왔지만 실상의 계시록이 이만희가 죽으면 다 뺏아 된다. 뺏아 뺏아까지 시한부 종말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빙자하여 사기를 쳐 자신이 이긴 자, 구원자, 약속의 목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호의호식하다가 거짓선지자로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신천지 이만희가 가감 없는 종말론을 들고 나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학설, 예측, 시나리오가 많으면서 한가지로 말하지 못하고 있겠다. 저했다 하여 계 22:8을 인용하여 가감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독교에서 이만희처럼 계시록 1장부터 22장 21절을 들고 나와 실상을 외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단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학설, 예측, 미래의 시나리오 많은 학설들이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해석학으로 계 1:1-7은 풀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풀 수 있다 ‘속히를 찾아서(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을 순서적으로 읽어 내려가면 21C까지 미궁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국땅에서 밝혀진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발에 감추인 보화(속하)를 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으로 20만이 넘는 성도를 잡아먹은 적그리스도가 있을까?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이단을 말하는 것인데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으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짓선지자는 전 세계에 없다. 우리나라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간교한 뱀처럼 뒤집어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부패화시키고 있다.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 직장, 신학교, 신학대학까지 침투하여 잠복하여 옛 뱀으로 잠아먹고 있다.

그런데 신천지와 기독교의 계시록이 방향 자체가 다르므로 방어할 무기가 없다. 방어할 무기가 있다면

계 1:1-3의 ‘속히’ 사건을 풀어지면 된다. 성경 요한 계시록으로 20만 명이 이상이 신천지로 넘어갔으므로 다른 이단들과 달리 수행이 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들고 말씀을 앞세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계 1:1-7의 올바른 요한계시록을 내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뒤집는 간교한 옛 뱀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계 1:1-3은 영원한 하나님의시간속에 영원히 남을 것인가?

교회에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가 많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곧 몇 천 안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3년, 5년을 들으면 약간 식상한 느낌이 든다가 10년 30년이 넘으면 “속히 오리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또한 마라톤을 외치면 종말의 사건들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징조들이 생각이 나쁘로 마라톤단 이를 삼키 시켜본다. 그러다가 종말론을 들고 나온 불같은 사명자들이 말세에 종말론을 읽어버렸다고 불을 토하여 설교하면 정신이 반짝 들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혼미한 상태로 혼수상태가 되어버린다.

어떤 교단 목사님은 계시록을 15년정도 연구하여 사람들을 볼 때마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고 시대적 상황들과 정황하게 나열하다가 목회 4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점에서는 계시록을 내려놓았다. 성경을 보면 아직도 요한계시록 1장 1절(만드시 속히 오리라)이 그자리에 있다고 쓴 웃음을 짓는다.

‘속히 오리라’라는 수많은 책들의 제목들.

1)그날이 속히 오리라 2)속히 오리라 3)그날이 임박했다 4)문전 5)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6)속히 오는 것은 눈으로 보리라 7)마라톤 8)에서 오시옵소서 계 1:1을 가지고 수많은 제목들이 책으로 나왔지만 서문, 본문, 결론에 도달해도 속히 온다는 정황만 기록하게 기록되었지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는 빠져있는 식상한 책들처럼 제목만 달랐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책은 없다.

‘속히 오리라’의 결론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하에 있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이라다 보니 시한부 이단들이 자신이 사는 시대에 년, 월, 시, 시대를 정하여 3년마다 종말론을 변경하면서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미래까지 시기를 쳐도 당할 수에 없다.

만드시 속히 오리라 본문의 책 1-3P 중에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 전국사모단합대회

주제 : '주안에서 하나되자' (시 133:1)

강사



총회장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년 전국사모단합대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7차 전국 사모단합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좋은 교단 좋은 사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 18일(수) 2박 3일

| 장 소 | 제주도,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

| 대 상 | 교단 산하 각 교회 사모

| 문 의 | 총무 김귀순 사모(010-8973-4250)

재무 김숙향 사모(010-8372-0091)

| 후원계좌 | 농협 352-1317-6813-13 김숙향

일 정 표

10월 16일(월)

- 13:30~14:30 개회예배
(설교 총회장 김양인 목사)
- 14:30~18:00 제주지역 관광

10월 17일(화)

- 09:00~18:00 제주지역 관광

10월 18일(수)

- 09:00~10:30 팀웍
(단합의 시간)
- 10:30~11:30 폐회예배
(설교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

2017 전국사모회 증경회장단

고문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한정은 사모
(가평순복음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김영숙 사모
(순복음 거제중앙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직전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2017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1부회장



한옥현 사모
(광양은혜와진리교회)

2부회장



박경미 사모
(순복음 승리교회)

총무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부총무



신순철 사모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배은록 사모
(순복음소망교회)

부서기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회계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부회계



김병희 사모
(은혜와승리교회)

재무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북한의 핵실험’ 우리는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가?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 최성해 총장

북한이 3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이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폭발위력이 점차 커져서 이번 핵실험에서는 그 위력이 50~70kt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에서는 5.7(우리 기상청이 측정한 것이고, 외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한 6.1~6.3으로 측정함)의 인공지진도 계속되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콧방귀를 뀌고, 여전히 핵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번의 핵실험 결과는 북한의 핵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며, 완성 단계에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핵무기 하나만 서울 지역에 떨어졌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까지 초토화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고 하니 우리는 너무 인일하게 대북 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다뤄왔다는 자책감이 든다.

우리 정부도 긴급하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응징을 하며 북한



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했으나 무시태평하며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여 아쉽다.

북한은 결코 대화 상대자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힘으로 강하게 제압할 때만이 억지로 합의 원리를 수긍하는 집단임을 간파한 것이다.

이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더욱 심도와 밀도 있게 풀어야 하며 특히 중국은 말로만이 아닌 ‘불량국가’(rogue nation) 북한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분명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결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며 어느 나라에도 위협(恫嚇)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느슨하고 낙관적인 대북자세를 버리고, 총력을 기울여 분명하고 확고한 틀에서 북한을 압도할 정도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등한히 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으며 지금은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여 우리를 핵 인질로 삼아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보다 흉악한 살의(殺意)를 품은 살인자를 이웃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침 제107차 총회 총회장 후보 공개토론회

기호1번 안희묵 목사 기호2번 박종철 목사 경선 나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7차 정기총회가 오는 9월 18(월)~21(목) 평창한화리조트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두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기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만식 목사)는 지난 8월 31일 침례신학대학교 아가페홀에서 제 107차 총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후보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경선을 벌이게 된다. 침례교단의 중요한 이슈는 침신대와 침례병원 등 교단 내 기관들의 정상화에 대한 해법으로 과연 누가 적격자인가 새로운 총회장의 리더십에 교단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장 후보에 나선 기호 1번 안희묵 목사는 자신이 교단의 골든타임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고, 기호 2번 박종철 목사는 교회를 바로 세워 희망제작소를 만들겠다고 함주어 말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기호 순으로 각 5분간 기조연설이 이뤄졌으며,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과 교단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안희묵 목사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류, 하류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총회의 골든타임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대인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서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종철 목사는 교회와 교단을 바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희망제작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약으로 △106차 총회 연금정책 계승 및 확대 △다음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미래교회 구축 △목회 다양성 보장 △침례병원 회생 △침신대 정상화 △신분고 설치를 통한 소통하는 총회 등을 내세웠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침신대와 침례병원, 연금제도 등 교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특히 총회 연금제도에 대해 두 후보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종철 목사는 “연금에 대해 더 확대하고 깊은 논의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재정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희묵 목사는 “지금 연금을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 할 지도 모른다”며 전국 침례교회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사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지난 9월 1일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여중생 피투성이 집단폭행사건은 온 나라를 경악시키고 소름끼치게 만든 참혹한 비극이다. 이 사건은 이 나라 청소년 교육의 현상이 철저히 병들었음을 보여준 한 단면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인천에서 17세의 여학생 두 명이 초등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경악했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어쩌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속에서 이런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국민 각자가 수처스럽고 통탄할 비극이요 하늘과 온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우리 청소년 교육을 이 꼴로 만든 정부와 교육당국이 온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교육적, 인륜도덕 질서 파괴성에 비추어 비록 취임 몇 달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교육부장관부터 이 나라 청소년 교육의 참담한 파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분쇄되어야 한다.

아침에 14세 중3 비행 소녀 네 명이 작당하여 다른 또래 소녀 하나를 짐승처럼 끌고 가서, 철근, 유리병, 칼 등 무서운 흉기들을 휘둘러 무려 1시간 반 이상이나 유희이 남지하게 폭력을 가해 사상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심대하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행 그 자체이며 오늘 우리 사회전체의 자욕이다.

이 사건이 터져 나오자 강릉, 부천, 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와 같은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잇달아 드러났다. 참으로 우리 청소년인성 교육이 오늘 날 파탄 상태에 이르고 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는 3만7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학생 인권 조폐니 뭐니 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통제와 훈육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이른바 ‘전교조 교육’의 병통이 이러한 망국적 교육 실태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도의, 사랑, 화합, 전진의 기운보다는, 좌우 대립과 국민 분열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교육 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외교·안보·문화·노

동 등 모든 영역에서 좌·우 편 가르기 내지 정치 보복적인 분위기로 휩싸여 가고 있다. 그 속에 미래 세대에 대한 도의와 인성교육의 재정비 같은 교육 대책이 자리 잡을 틈도 보이지 않음이 사실이다.

게다가 감정은 집단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보대책 부실로 인하여 무역과 생산·실업 해소 등 경제적 동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국가 융성 발전의 전망까지도 어두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자라 김정恩의 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국군은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었고, 평壤인 미국·일본 군대까지도 비상경계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었다. 바로 그날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나라의 국군 통수관자인 대통령은 한가하게 애견을 몰고 등산을 즐기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이 다른 국군 통수관자를 믿고 국민과 60만 대군이 안심하고 본업에 매진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북한이 설마 핵으로 동족인 우리를 겨누겠는가 하는 민족적 정서, 돈 몇 푼 손에 쥐여줘 가며 슬슬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오만한 생각, 우리가 진심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순진한 생각, 국방에 더 많은 돈을 들여 실질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된다는 수량적 생각 등은 참으로 참으로 그 동안 너무 인일했고 낙관적이었다.

이스라엘백성이 망국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창조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악에 빠지고 병들어 있는 사회상을 엄중히 꾸짖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타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 뿐 이어는 그것을 찌며 싸매며 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사 1:4-6) 하였다.

정부가 바로서지 못하면 누가 이 병통을 싸매어 줄 것인가? 한국 교회는 더욱 비정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온통 때 맞고 상처투성이가 병든 이 백성이 뼈아프게 자이를 깨닫게 하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본문 요한복음 1장-5절

요한복음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오셨고,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는 전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목적).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세 개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초점이며,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구원의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 기쁨, 평안, 당신의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축복받는 것, 질병,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리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일리이나 진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분은 전체가 될수 없고, 일리는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천에 용이 난다라는 말은 일리이지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진리가 되려면 개천에서만 용이 나와야 합니다. 개천에서도용이 날수 있다는 것은 일리입니다. 하나님부터 백까지 전체를 믿는 것이 진리이지 하나님들러도 진리가 아닙니다.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여 받아들입니다. 진리입니다. 환경구원, 상황구원은 일리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환경, 상황구원은 변합니다. 형제가 나았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 것은 일리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격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얻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얻은 구원이기에 절대로 망망치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분별하고 확신할까요?
일리를 빨리 정리하고 진리만을 얻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상황이나환경 구원을 받는 자들은 망하고 노아시대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로 더 어렵고 열악한 곳을 선택하였어도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인격에 달린 것이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환경을 바꾸 달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농부가 어디에 씨를 심어야 하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원수가 아니라 내 구원을 돕는 요소입니다. 모든 왜 물에 심어야 할까요? 땅에 심으면 안 될까요? 가장 적합한 곳에 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인격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요셉이 환경이 좋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인격이요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과 삶이었습니다.
히11장 환경이 신앙의 성공요인이 아니라 그 인격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더더러도 그것이 남는 것이며, 그 인격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심판이 무엇일까요? 커타수 하나님 앞에 서었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드러낼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생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격과 삶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아무리 선택도 사람은 할수 없이 그리스도가사람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한 인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시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추계 성령충만 수련회

주제 : 주여! 성령의 불을 주소서(눅 12:49~50)

모시는글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에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여교역자국에 새롭게 세움을 받은 한순남 국장입니다.
지면으로 인사드려 송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것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더욱 겸손히
총회의 모든 선배님들의 조언과 총회의 행정에 충실하며 회원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추계수련회로 모든 회원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책위원장님과 총회장님 그리고 특별강사님들을 모시고 영육의 꼴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오니
여교역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

강사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김양인 목사
총회장
목양제일교회

“함께 함이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 | 일 시 | 2017년 9월 18일(월) 오후 2시부터 ~ 20일(수) 낮 12시까지
-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수양관(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 | 대 상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회원
- | 주 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 | 문 의 | 국장-한순남(010-2853-8190) · 차장-김바울(010-852-9340)
- | 후원계좌 | 농협→352-1333-4784-13 예금주 한순남

※여교역자국 연중행사

1.추계 성령충만 수련회 2.송년기도회 3.춘계 세미나

시 간	18일(월)	19일(화)	20일(수)
06:00 ~ 07:00		새 벽 예 배	
07:00 ~ 08:00		아 침 조 식	
08:00 ~ 09:00		휴 식	폐회예배
09:00 ~ 10:00		특 강 1	광명동굴로 출발
10:00 ~ 11:00			광명동굴 관람
11:00 ~ 12:00		점 심 식 사	
12:00 ~ 13:00	접 수	특 강 2 (김양인 총회장)	개교회로 출발 ↓ 지방회별 점심식사
13:00 ~ 14:00	개회예배 설교: 조용목 목사	휴 식	
14:00 ~ 15:00		특 강 3	
15:00 ~ 16:00	친교의 시간 (자부별·개인별 장기지랑)		
16:00 ~ 17:00	저 녍 식 사		
17:00 ~ 18:00	부 흥 회	부 흥 회	
18:00 ~ 19:00	자 유 시 간 및 취 침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22:00 ~ 23:00			
23:00 ~ 24:00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 직

임
원
단

전
국
지
부
장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행정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산별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의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문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장흥교회 조은주 목사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암순복음교회 김중애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청주지방회 지부장
시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기교회 정예스더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예심로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믿음교회 이경자 목사B	몽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현시바 목사	대성산기도원 임연일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전라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은진지방회 지부장				
통영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순복음빛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중앙선교회 김명자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정복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